

F-X 사업 F-15K로 결정

F-15K에 장착할 엔진으로는 GE로 결정

공군의 항공작전능력을 제고시키고, 항공기 노후, 도태에 따른 부족전력을 보충하며, 미래 한 국형 전투기 독자개발에 필요한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 되어 온 F-X 사업의 기종으로 미 보잉사의 F-15K가 최종 결정되었다.

보잉사가 제시한 F-15K는 현재 미 공군이 운용중인 F-15E에IRST(InfraRed Search and Track System)을 장착해 전투능력을 향상시키고, 레이더 성능을 개량해 정밀도와 표적 획득 능력을 향상시키며, RWR, Jammer 등 전자전 장비의 성능을 개량하고, Harpoon(Block II), SLAM-ER, AIM-9X의 무장을 추가 장착하는 등 성능을 향상시키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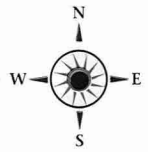
■ 제원 및 성능

구 분	내 용	구 분	내 용	
기 폭(m)	13.05	엔진추력(lbs)	2×29,570	
기 장(m)	19.43	추력대 중량비	1.52	
기 고(m)	5.63	최 대 속 도(M)	2.3	
최대이륙중량(lbs)	81,000	공대공 미사일	8	
자 중(lbs)	33,070	공대지 미사일 (장거리/중·단거리)	2/6	
내부연료량(lbs)	13,725	행 동 반 경 (km)	공대공 임 무	1,000 이상
외부탑재량(lbs)	29,150		공대지 임 무	1,200 이상

■ F-15K 무장능력 및 한국보유 호환성 탄약

(음영은 한국군 보유 탄약)

임 무	무 장	F-15K
기 관 포 탄	Gun(mm/rounds)	20/512
공 대 공 유도탄	중 · 단거리 공대공 유도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MRAAM • AIM-9L/M • AIM-9X • AIM-7M
공대지/해 유도탄	장거리 미사일(100km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LAM-ER
	중 · 단거리 미사일 (100km 미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GM-130 • AGM-65D • AGM-65G • AGM-84G(BLK I) • AGM-84G(BLK II) (공대함)
유 도 폭 탄	유도폭탄(LGB)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BU-10 • GBU-24 • GBU-12 • GBU-15
	GPS 유도폭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JDAM
자 유 낙 하 폭 탄	일반폭탄/확산탄/기타폭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K-82 • CBU-58/71/87/97 • CBU-103/105 • MK-84 • BLU-109
전 자 전 탄	Chaff/Flar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RR-170/RR-180 • MJU-7(KMJU-7)/MJU-10



국회에서 산업정책토론회 열려

「항공산업 발전방향 및 대책」을 주제로



안영근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항공산업은 소재, 기계, 금속, 전자 및 정보통신 기술 등 첨단기술이 집약된 21세기를 이끌 고부가가치 미래산업으로 지정학적 측면을 고려할 때 자주국방을 선도하는 국가 생존산업이기도 하다”고 강조하고, “막대한 자본과 최첨단 기술이 요구되는 항공산업의 특성상 우리는 아직도 주요 선진국의 수준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으며 항공기 독자설계 능력이 부족하여 핵심기술을 해외업체에 의존해야 하는 것이 현실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FX사업 추진을

계기로 첨단기술을 획득해 2015년까지 자체적으로 차세대 전투기를 만들겠다는 계획을 세워 놓고 있다”고 밝혔다.

이 날 토론회는 박춘배 인하대 항공우주공학과 교수의 주제발표에 이어 김승조 서울대 교수의 사회로 건국대 최정표 교수, 임철호 항공우주연구원 항공사업부장, 홍성범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김영세 연세대 교수, 최준영 산업자원부 자본재산업국장 등이 토론자로 참여해 참석자들과 열띤 토론을 벌였다.

지난 4월 3일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안영근 의원이 주최하고 미래산업연구회가 주관하여 「항공산업 발전방향 및 대책」을 주제로 산업정책토론회가 열렸다.

국내 항공산업의 현실을 냉철하게 인식하고 미래 항공산업 발전의 초석을 견고하게 다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개최된 이번 산업정책 토론회에는 200여명의 산·학·연·관 관계자가 참석했다.

방산학회, 11차 방위산업 정책포럼 개최

「비용분석의 올바른 이해와 발전방향」을 주제로

지난 4월 12일 한국방위산업학회가 주최하고 한국방위산업진흥회가 후원하는 방위산업정책포럼이 학회회원 및 뮌, 정부 관계자 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조선히텔에서 조찬을 겸해 개최되었다.

이날 포럼은 황동준 학회장의 국방연구원장 취임을 축하하고, 이호석 국방연구원 비용분석연구실장이 「비용분석의 올바른 이해와 발전방향」을 주제로 발표하고, 안태식 서울대 교수, 이상진 국방대 교수, 유찬웅 로템 기술연구소장이

토론자로 나서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호석 실장은 주제발표에서 "지난 3년간 비용 분석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고해졌으며, 획득 사업에서 비용분석은 화두가 되었으며, 비용분석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Process)으로 발생비용의 정산이 아닌 미래비용의 추정"이라고 정의하고 "비용 분석은 원가를 결정하거나 삭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합리적 추정을 통해 획득의사 결정을 지원하는 중요한 수단이란 점을 인식해야 하며, 우리의 비용분석은 결음마 단계이며 당장의 성과보다는 튼튼한 기반과 효과적인 방법을 정착시키려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국회에서 박세환, 이연숙 의원이 참석해 깊은 관심을 나타냈으며, 업체측에서 원가절감에 대한 인센



티브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비용분석이 오히려 원가 산정 이후 다시 한번 원가를 삭감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육군, 전력증강 방향 공개설명회 개최

업체와 관련기관의 연구방향 설정 및 무기개발업무에 도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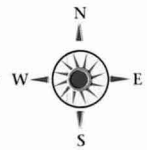


계룡대 대강당에서 방위산업체 및 벤처기업 관계자, 방위산업 관련 연구원, 전력증강분야 군 관계자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육군의 전력증강 방향에 대한 공개 설명회를 가졌다.

이날 공개 설명회에서는 「정예 Digital 육군 건설」을 지향하는 육군이 이를 구현하기 위한 전력증강 기본개념을 소개하고 향후 5~10년 사이에 운용 예정인 11개 기능 분야 53개 중점사업에서 요구되는 무기 성능, 육군의 무기체계 획득업무 기본방향, 개발업체에 대한 협조 요망사항 등을 제시하였다.

이외, 세계적인 무기체계 발전추세와 연구개발 동향, 독자개발이 필요한 신기술·핵심연구분야 등을 소개하여 관련기관과 업체의 연구방향 설정 및 무기개발업무에 도움을 주는 한편, 무기획득 사업의 투명성도 제고할 수 있는

육군 은 미래전력에 대한 軍·産·學·研의 관심 증대와 연구개발 활성화를 유도하고 무기체계 획득업무에 대한 대국민 신뢰증진을 위해 지난 4월 4일



기회를 제공해 주었다.

제1부에서는 김관진 전력기획참모부장의 인사말에 이어 서한필 무기체계과장의 사회로 배득식 전력기획과장이 「미래 지상전력 발전 기본방향 소개」를, 이채언 계획운영과장이 「획득관리 발전방향」을 발표하고 참석자들과 질의 및 답변하는 시간을 가졌다.

제2부에서는 신무기체계 및 기술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이상길 육군사관학교 교수의 「차기세대 지능포탄 개

발동향」, 김영덕 국과연 책임연구원의 「무인 전투체계(지상 무인화체계)」, 김덕현 서울산업대 교수의 「첨단 복합재료」, 조철형 (주)옵트닉스 사장의 「영상종폭관 국산화」 발표에 이어 종합토의하는 순서로 진행되었다.

육군은 매년 전·후반기로 나누어 「무기체계 설명회」를 가짐으로써 방산업계에서 제안하는 신무기 관련자료의 공개, 상담 체제 등 관련정보 공유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소프트웨어 직무능력 향상 설명회 개최

획득 비중이 증대되는 소프트웨어 중요성 강조



특히 국방획득관리규정에 소프트웨어 관리업무를 추가한 이후 2001년 12월 제정된 '소프트웨어 관리지침' 내용과 국방규격화, 품질보증내용을 사례위주로 진행함으로써 참여자들의 호응도가 높았으며, 소프트웨어 가치보상 문제, 소프트웨어가 내장된 주요 장비의 방산물자 지정 검토와 품질인증(CMM, SPICE) 발전 추세 및 대처방안 등을 심도 있게 토의함으로써 이수자들이 업무수행에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설명회는 국방부 소프트웨어 업무지침내용에 대한 설명과, 국방 규격화/품질보증시례로 박격포용 사격제원계산기 규격화 내용과 지상감시레이더

품질보증내용을 설명하고 참석자들과 당면현안을 토의하는 순서로 진행되었다.

국방품질관리소는 지난 2월부터 국방부, 합참, 조본, 육·해·공군본부의 사업관리/정책위원과 국방과학연구소의 개발요원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주요 무기체계계별 소프트웨어에 대한 기술지원을 강화하고, 3/4분기에 심포지엄을 개최하는 등 소프트웨어 품질보증 전문기관으로서의 위상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한국

방위산업진흥회와 국방품질관리소는 4월 16일과 18일 양일간에 걸쳐 방산업체와 일반 군수업체 요원 200여명을 대상으로 소프트웨어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서울지역과 창원지역에서 열린 이번 설명회는 첨단 고도정밀 무기체계에 탑재되어 성능구현의 핵심으로 획득비중이 날로 증대되고 있는 소프트웨어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관련 임원과 실무요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마련됐다.